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제1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두려움과 혼란이 증폭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종파간의 갈등으로, 미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박한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 인류의 꿈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평화의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돌부리에 채이듯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손을 털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다시 길 떠날 줄 아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시고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 인도자
♠ 교 독 문 3. 시편 4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조윤숙 선생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함께
성경봉독 I. 요 5:1-29 인도자
 II. 대하20:18-24 권미정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행복한 구원 김재흥 목사
 II. 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33.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제 더 이상 사소한 일상의 굴레에 갇힌 수인(囚人)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사랑과 평화의 씨를 심으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청파 찬양제	9월 기도의 밤
주관: 성가대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하현철 권사

9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권혁숙	안정숙	정경례	조항미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조병주	김성자	허정윤

이름 없는 사람에게 지은 죄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유명한 학자이며 점잖은 인품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브리스크의 어느 랍비가 집에 가기 위해 바르샤바에서 기차에 올라탔다. 외모로 봐서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이 랍비가 들어간 객실에는 여행 중인 상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카드놀이를 시작했다. 놀이가 계속될수록 흥도 배가되었다. 하지만 랍비는 그저 초연한 태도로 명상에만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런 초연한 태도를 불편하게 느낀 그들은 랍비에게 카드놀이를 같이 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랍비는 카드놀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랍비의 초연한 태도를 더욱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그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랑 놀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시오.” 잠시 후, 그는 랍비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객실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하여 기차가 목적지인 브리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랍비는 마냥 서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상인들의 목적지 또한 브리스크였다. 랍비가 기차에서 내리자,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달려와 반기며 악수를 나누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상인이 물었다.

“저 분을 모르시오? 그 유명한 브리스크의 랍비시라고.”

그 순간 상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가 행패를 부린 사람이 누구인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는 재빨리 랍비에게 다가가 자기가 한 짓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랍비는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호텔에 와서도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던 상인은 랍비의 집으로 찾아갔다.

“랍비님.”

그는 말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금해 놓은 것이 300루블쯤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준다면 이 돈을 랍비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럴 수는 없소.”

상인은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위안을 얻기 위해 회당을 찾아갔다. 그가 자신의 걱정을 회당 안의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토록 점잖기로 소문난 그들의 랍비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상인에게 랍비의 큰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랍비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불안해하는 상인의 모습을 보고, 그는 아버지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용서에 대한 율법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누군가가 세 번이나 용서를 간청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랍비가 언급하자, 그의 아들은 그 걱정하던 남자의 이름을 꺼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는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지. 사실 그는 어느 이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란다. 그러나 그보고 나 말고, 그 이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고 하려무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저질러진 범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진 600만 명이 받은 고통을 지금 여기 살아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대표해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심지어 하느님조차 인간이 당신을 향해 지은 죄만을 용서할 수 있을 뿐,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지은 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마6:12)

■ **마/음/으/로/읽/는/글**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은 오는가
무력했던 여름/비극의 환상이 언뜻언뜻
무더위로 사라진다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는가
어둠의 꺼풀을 벗고/면동이 꿈틀대는 모습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순리를 보러 가자

홍건히 이슬에 젖은 발부리로
이 육신을 세우고/대지를 향해 나선다
마을을 나서는 기침소리
가까이 흐르는 냇물소리
살아 있는 모두의 안부를 묻는다

차가운 소리
가을이 온다, 내 정신으로
살아온다
(박이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박옥식 박병선 방현복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안종일 정현주 김준호 곽혜자 이광용 형인순 김근종 정옥영
 백승민 김용길 최영혜 이유선 방극숙 방 민 박정숙 양재성 임미심
 김성한 조영순 최인환 왕성환 강순배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이지훈 서재홍 박현우 이동천 황경순 김남종 오복순
 최주환 문복순 왕수명 박준희 이기분 이정은 박정숙 고숙이 이봉배
 서정순 이희균 김영한 정미경 이병철 김현진 박범희 박미영 최윤희

감사헌금:

김재홍 최희영 윤정덕 한완식 임정자 정복순 권혁순 표명화 김미순
 송동준 김진경 이현순 왕성환 강순배 박금희 하은주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유 영 남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박 홍 엽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속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속		이 순 정은
빌 린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교육부장회의가 오후 1:10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3. **찬양제** : 오늘 오후 집회는 성가대가 주관하는 찬양제로 모입니다. 상품을 협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기도의 밤** : 9월 7일(수) 오후 7시 30분에 모입니다. 지친 영혼, 상한 영혼이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7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실시됩니다.
6. **환경교실** : 생명과 평화의 새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9월 말 경부터 시작할 환경교실에 등록하십시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선교회에서 한 두 분 정도는 꼭 참석해주십시오.
7. **신앙실천** : 교유가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10% 정도 절감해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전기 플러그를 뽑아 보십시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 헌화 : 윤주원 권사 최윤선 집사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